'국제 3D프린팅·드론 코리아 엑스포'

오는 4월 6~8일 개최… 전시 · 컨퍼런스 · 드론축구 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는 3D프린팅과 드론 등 첨단 신산업과 관련 중소기업 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국제산업 박람회가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특별 전시장에 서 4차 산업혁명 붐 조성과 전주지역 관련기업들의 신성장 산업 동력 확충 을 위한 제5회 국제 3D프린팅 · 드론 코리아 엑스포 를 연다.

시와 전북도가 주최하고 (사)3D프린 팅산업협회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 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엑스포는 3D 프린팅과 드론 등 전주시가 중점 육성 해온 미래 신산업의 저변 확대와 산업 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열리는 행사

특히 이번 엑스포는 주최국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아세안, 이스라엘 등 10여 개 국가의 200여 개 업체가 참여 할 것으로 예상, 명실상부한 국제 미 래산업 박람회로서 위용을 과시할 것 으로 전망했다.

행사 기간 특별 전시장에는 3D프린 팅과 드론, 탄소, ICT 등 4차 산업혁명 의 주역으로 평가받는 각종 미래 신산 업 관련 전시 부스와 홍보 부스가 설 치,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미래 첨단 기술과 관련 제품들을 선보 일 예정이다. 또한 엑스포 기간 열리는 신산업 관련 컨퍼런스 및 강연회에는 3D프린팅과 드론산업 등 국내・외 신산업 전문가들이 초빙될 예정이어서 유익하고 폭넓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뿐만 아니라 전국 드론축구대회 와 드론 자리 뺏기, 드론볼 계주, 장애 물 페널타킥 등 대한민국 대표 ICT 융 복합 레저스포츠로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드론축구 관련 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 행사를 보는 재미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엑스포 기간 3D프린터로 제작된 제품의 독창적이고 다양한 아 이디어를 평가 및 심사하는 3D프린팅 디자인 경진대회도 진행될 예정이어 서 시민들이 3D프린팅 및 드론 등 미 래 신산업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3D프린팅과 드론 등 전북도와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육성 중인 미래산업들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과 제품, 이슈들을 한 자리에서 관립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이번 엑스포를 전주시 신성장 산업회의 디딤돌로 삼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TOLLT IN TOTAL SECTION OF THE SECTIO

전북도교육청과 지역경제인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와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20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직 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지부 임 규철 회장과 한희경 수석부회장, 소상 공인연합회 전북광역지회 두완정 회 장 등 지역경제인단체 관계자 40여명

'지역상권 활성화·학교급식 개선'정책간담회

과 만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지역상권 이 활성화돼야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학교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서 "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교육청도 적극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상 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전북교육 에 지역경제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 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규철 회장과 두완정 회 장은 교육정책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도입해 줄 것을 전북교 육청에 요청했다.

또 현재 월 1회인 도교육청 구내식 당 휴무일을 월 2회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개선 대책 등을 건의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교육청, 학부모교육 추진계획 수립

전북도교육청은 학부모 학교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학부모교육을 목적으로 2018년도 학 부모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0 일 밝혔다.

전북교육청 학부모교육은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 학부모 재능기부 활 성화 교육, 혁신교육 공감대 확산 교 육, 지역단위 학부모 교육,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은 학부모 리더 교육, 전북교육아카테미, 부모 성장 달빛학교, 나만의 시집 쓰기, 사각사각 디딤돌, 나만의 책 만들기, 학부모 독서교육,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만들기, 사춘기 자녀 마음보기, 자녀와 공감하는 성교육, 자녀와 함 께하는 학부모 현장 체험, 교권보호 를 위한 학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 이 미련됐다.

학부모 재능기부 활성화 교육은 학 부모 학교놀이 자원활동가 교육, 책 모임 마중물샘 교육, 학부모 동화연 극 지원활동가 기본교육 및 심화교 육,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으로 들려 주는 동화', 학습친구 엄마샘 지원활 동가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생활 속 사이언스 맘 지원활동가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으로 운영된다.

혁신교육 공감대 확산 교육은 놀이 밥60+ 프로젝트 학부모 교육, 아빠와 함께하는 '놀부(父)랑~ 놀자(子)', 학부모대상 진로교육 '세상을 바꾸는 진로 카페', 우리아이, 미래형 인재로 키워라, 초미세먼지 잡는 초록식물 가드너 교육, 하브루타를 활용한 토론학습법,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학습유형 검사,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으로 구성된다.

지역단위 학부모교육은 권역별 학부모 협의회와 찾아가는 권역별 학부모 교육으로 이뤄지며,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은 3월초 공모를 통해 도내 225개교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에 4억5천만원이 지원되다.

저소득 대학생에 해외연수 기회 제공

전북대, 교육부 '파란사다리' 사업 호남 · 제주권 주관대학 선정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저소득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인 '파란사 다리' 사업 호남·제주권 주관 대학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 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생에 게 해외 연수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추진한 제도로, 전북대를 비롯해 전국 권역별로 7개 대학이 선정됐다. 전국에서 800명의 대학생을 선발해

정부(70%)와 주관대학(30%)이 공동으로 경비를 지원해 해외 대학에서 4주동안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3월 중 80명 내

외의 학생을 선발, 1인당 500만 원(국 고 350만 원, 대학 150만 원)을 지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선발해 해 외 연수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전북대는 자교뿐 아니라 호남·제주 권역 내 타 대학 소속 학생도 20% 정도를 선발, 사전 교육과 진로 멘토링 등 사회 관리 등을 지원한

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어학연수 프로그램과 달리 학점이나 어학 등 성적 기준이 아닌 자기 개발과 미래에 대한 열정, 잠재력 등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주관대학별로 3~4월 경 학생을 선 발해 2주간의 사전교육을 거쳐 6~9월 경 현지 연수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현지 연수 파견 전 선발된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파란사다리 발대식'을 6월 경 개최해 사업 취지의 이해도와 연수 참여의지를 높일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발대식 개최

2018년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이 20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 성다1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4시, 8층 회의실에서 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은 안승국 전북여고 교사를 단장으로 총 68명 의 진학전문 교사가 참여하며, 자문 위원(3명)과 5개팀으로 운영된다. 지원단은 Δ 연수 및 현장지원팀 Δ 입시분석 및 자료개발팀 Δ 대입전형 연구지원팀 Δ 대입진로진학상담팀 Δ 대외협력팀으로 나뉘어 2019학년 도 대입진학지도 정보 및 전략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원단은 사교 육 진학컨설팅 수요를 해소하고 권 역·학교 단위로 체계적인 진학지도 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갑민근 기자

